

김양욱 소장,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10일 오전 11시 서울여의도 국회의관 앞마당에서 열리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전라북도 장애인을 대표해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김양욱 소장이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거행되는 취임식에는 전북에서도 각계각층의 전북인사 50명도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본 행사에서 연주곡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음악활동하고 있는 차인홍 지휘자가 역할을 할 것이다.

식전행사는 장애인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공연도 있고 본 행사에도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연수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취임식 축하공연은 사회악자가 주축이 되었고 어린이 장애인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취임식으로 미래, 희망을 강조한다.

김양욱 소장은 "취임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설공단, 어버이날 어르신에 케네이션 선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어버이날을 맞아 이지역 어르신들과 특강특시 탑승하는 교통약자 어르신들에게 케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이지역 특강특시와 어르신들을 이용하는 어르신 이용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차량 탑승 시 운전원이 직접 이용객에게 케네이션을 선물했다.

케네이션을 받은 박지자 씨는 "자녀가 외국에 살아서 항상 어버이날을 쓸쓸하게 보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인후2동·동현교회, 손길 모아 반찬 나눔 실천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동장 이진숙)은 지난 6일 전주동현교회 봉사자들과 함께 식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성껏 만든 반찬을 지원하는 '손길 모아 반찬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자들은 저소득층 홀로 어르신들에게 영양이 듬뿍 담긴 반찬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도 살렸다.

손길 모아 반찬 나눔 사업은 관내 홀로 어르신 및 취약계층 2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진숙 전주동현교회 목사는 "반찬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고 보람차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 주생면, 마을만들기 준공식 가져

남원시 주생면은 2019년부터 추진한 정충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마을주민 등 각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및 마을잔치와 함께 하는 주민화합을 이뤄냈다.

정충마을은 그동안 주민 공동공간이 노후해 공동체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복지시설을 새롭게 조성, 쾌적한 환경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5억원의 사업비로 주생면 정송리 41-9번지에 1층 건축면적 149.16㎡ 규모로 마을 복합문화공간인 정충복지관을 신축하고 주민 자치활동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함께 추진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행복한 전북농촌 만드는데 함께 노력”

전북 농기계은행 선도농협의 정기총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9일 전북 농기계은행 선도농협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농작업 대행면적을 33만 ha, 직파·드문모 재배면적을 4.87만 ha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전북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은 맞춤형 7개 참여농협을 중심으로 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직파·드문모 재배농법 보급을 확산했다. 또한 농작업 대행의 종류와 면적을 확대해 농촌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부족 해소와 농기계이용 효율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협의회 최승운 회장은 "올해부터 10개 365농업지원단 참여농협을 중심으로 경운부터 수확 후 건조까지 일관대행 농작업을 확대해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기계은행사업 선도협이 농업인실의 중심의 농작업대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해 농업인이 행복한 전북농촌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은 농작업대행 스마트화로 영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기계 보급 확대를 계획한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어린이날 100주년 행사 개최 호응

남원시가 지난 5일 오전 둔지 춘향제 행사장 방파제에서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남원시청 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어린이 표창, 청소년동아리 댄스, 태권도 시범, 가족노래자랑 등 공연마당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3년 동안 묵혀둔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경연마당 가족사진 공모전과 팔씨름 대회에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한 행운권 추첨 등에서는 자전거, 킥보드 에어프라이기, 축구공,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했다.

특히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전동놀이, 체합놀이, 먹거리 등 45개의 다양한 체험부스와 에어버스터 놀이기구를 설치해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안주희 아동청소년계장은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어린이날 행사가 온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메워져 기뻐하며, 미래의 주인공들이 이 순간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읍시보건소, '흡연 NO, 금연 YES' 청소년 금연교육 운영

정읍시 보건소가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고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섰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2020년 평생 흡연 경험률이 남학생 13.9%, 여학생은 6.3% 이른다.

청소년은 니코틴에 더 쉽게 민감해지고 성인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빨리 커지므로, 금연이 어려워지고 평생 흡연자 또는 고도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금연 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흡연의 심각성을 깨닫고 흡연의 폐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흡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 중심인 청소년들의 흡연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동전주우체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 실시

동전주우체국(국장 김중철)은 가정의 달을 맞아 9일 호성보육원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소망 선물을 전달하는 우체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를 실시했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는 호성보육원 내 설치한 소원우체통에 아이들이 소원편지를 직접 작성해 우체국에 전달한 후 희망선물을 구입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전주우체국은 이날 48명의 아이들에게 장난감, 학용품, 간식 등을 지원했다.

김중철 국장은 "우체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을 통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우체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신태인농협, 어버이날 고객사랑 '효나눔' 행사

정읍 신태인농협(조합장 김성주)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6일 고객사랑 '효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신태인농협은 해마다 어버이날을 맞아 떡과 음료를 준비하여 방문하는 고객과 어르신들에게 케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위의 호평을 받고 있다.

김성주 조합장은 "오늘 행사가 코로나로 더욱 지친을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나눔문화 확산과 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상의, 전주산단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9일 전주산업단지 방문해 전주상의 의원초청 간담회를 갑기회관에서 개최했다.

전주산업단지 기업들의 경영애로로 수렴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입주기업 대표들은 환경관련 민원 해소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윤방섭 회장은 "전주산단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자체 등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지라도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제일고 유은아 학생, 옷칠공예 창업 '화제'

남원제일고등학교(학교장 김한태)는 전국 최초로 목공예학과를 신설했다. 이에 유은아(고3) 학생이 은하수 옷칠공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여성기업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은아 학생은 독창성 있는 옷칠공예 생산품을 다양하게 제작 중이다. 특히 춘향제를 맞아 7~10일까지 남원 옛촌 예루원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 및 제품 판매를 하고 있다.

판매 첫날부터 부산에서 춘향제 행사를 구경은 관광객이 옷칠 수저세트 20개를 전량 구매해 매진되기도 했다.

한편 제작된 상품은 온라인(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치매안심센터, 경증환자 쉼터 운영 재개

남원시치매안심센터(센터장 한용제)에서는 지난 5월 2일부터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서부권역 치매환자 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금지 문화누리센터에서 주 5일, 1일 3시간씩 급지면, 주생면, 송동면, 대강면, 수지 남향 등 서부권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두뇌튼튼체조, 인지훈련매뉴얼, 향기요법, 작업요법, 공예요법 등 다양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면지역 치매환자들의 이동을 돕고 편안하게 권역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택에서 교육장까지 왕복운행을 지원하는 택시 승영(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편의와 안전을 행기했다.

이 프로그램 상설운영은 2021년 8월 2일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지난 4월까지 중단하다가 재개하여 상시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치매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이며, 치매 악화방지와 돌봄을 제공해 낮 시간 치매환자 보호로 치매가족의 부양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선 치매안심과장은 "보건소 치매관리 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경증치매 어르신에게 찾아오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승환(전북도교육감) 모친상= 빈소: 전북대학교병원 경계리실 1호실(2층), 발인: 11일(수) 오후 7시 30분, 장지: 김계만경선영